

IJS JAPAN REVIEW



많이 긴 새해 인사:
혼돈의 시대, 일본연구소가 감당해야 할 일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직무대리

많이 긴 새해 인사: 혼돈의 시대, 일본연구소가 감당해야 할 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도 거창하게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해마다 작아져 가는 소망의 크기가 올해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소망이라면 소망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게, 비록 거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흥흥한 세상에 결코 작지 않은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한 해 시작하는 모양새가 더 흥흥해졌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본에서, 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류문명의 미래는 고사하고 내 삶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조차 해마다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연구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과거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바로 지난 과거조차 먼 과거로 느껴지는 요즘, 작년 IJS일본리뷰를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올 한 해 과제를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를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감히 IJS일본리뷰가 일본연구의 최전선, 한일관계의 최전선에서 날라오는 정세분석 보고서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5호부터 28호까지 꼬박꼬박 한 달에 두 편씩 스물네 편의 IJS일본리뷰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시도를 배경으로 한일관계를 취급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울 근무를 경험한 일본 언론인들을 집필자로 모시고 <한·일 언론인의 창(窓)> 시리즈를 새로 시작한 것도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2023년의 첫 호와 마지막 호를 포함해서 9편이 한일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대개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평가와 제언들이었습니다만, 과거사 해법과 현안협력 특히 안보협력의 복잡한 함수관계에 대한 고민을 행간에 깔고 있었습니다.

작년 2023년은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2022년을 초대형 방사포 3발로 마무리하더니 새해 벽두에 또 한 발을 발사하여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적시하고 핵교리를 변경하여 핵무력이 전쟁 억제를 위한 제1의 임무를 넘어 억제가 실패할 경우 제2의 임무를 ‘결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집필한 2023년도 첫 IJS일본리뷰는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 정세를 분석하고,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다시 읽는 데서 희망을 찾아보자고 제안 드렸습니다(5호). 소장 직무대리의 새해 인사를 겸한 것이었지만, 2023년 한일관계가 안보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과거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 실현에 한일관계 개선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가 재난연구의 성과들을 적용하고 실패학의 교훈을 참조하여 한일관계의 복원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제언을 냈습니다(6호). 김영근 교수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리노멀(Re-Normal)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한일관계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도 1998년 한일공동선언은 한일관계 복원의 지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난해 한일관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3월 6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제시되면서였습니다. 2월 말에 들어서서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을 때, 전진호 광운대 교수는 한일관계를 “왜, 어떻게” 풀어야 하는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일관계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확인하고,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8호). 그러나 2023년의 한일관계 개선과 이후의 전개가 전진호 교수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었겠지요. 이후 한일관계를 언급한 IJS일본리뷰에서 다수의 필자들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채워져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아직 미완이라는 논조를 폈습니다. 서울 지국장을 역임했던 이케하타 슈헤이(池畑修平) NHK 해설주간은 3월 중순의 한일정상회담을 “역사에 남을 큰 국면 전환”으로 평가했습니다(12호). 그러면서도 이케하타 주간은 “불상을 만들었으나 영혼을 넣지 않았다(仏作って魂入れず)”는 일본 속담을 소개하면서, 일본 측이 한국의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언행으로 윤석열 정부가 만든 ‘불상’에 ‘영혼’을 담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불상에 영혼을 담는 일을 일본에만 맡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와다 가쓰미(澤田克己)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은 오랜 서울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적대적 공범 관계’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16호). 사와다 위원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한국 정치가와 언론에서 나오는 공격적이고 때

로 악의적이기까지 한 언사와 행동이 일본의 험한 세력을 자극하여 문제 해결 노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경제신문사의 미네기시 히로시(峯岸博)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도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일관계의 등급이 격상되고 있는 일본의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20호). 미네기시 위원도 “한국 사회의 ‘장대한 시도’에 당사자인 일본이 방관자로 있을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여 불상에 영혼 넣기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아사히신문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기자도 다른 일본의 서울 특파원 경험자들과 비슷한 감상을 피력했습니다(24호). 그는 윤 대통령의 ‘대일’ 햇볕정책이 일본 측 마음을 움직였고, 이에 부응하여 기시다 수상이 ‘아베 스탠더드’를 넘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사된 ‘긴자(銀座)의 밤’이 한일 외교사에 남을 특별한 밤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의 원동력으로 정상들 사이에서 유행류가 되는 ‘밥의 힘, 술의 힘, 밤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젠더, 청년, 지방 등 새롭고 복잡한 전선이 부상하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관계에 이런 ‘전통’적인 모습들이 ‘구태’로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일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대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조용한 한일 협력의 요망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도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서에 담았던 정신을 인도-태평양 시대에 계승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25호). 그런데 그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조용하는 한일 공동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미중 대립을 신냉전으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발휘되어야 하는 정신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은 박성빈 아주대 교수의 글에서도 발견됩니다(28호). 그는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과 일본 국민의 ‘불안’이 한일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그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본 국민이 가지는 ‘불안’ 가운데 하나가 한중 밀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 기업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이 한중일 협력을 주도하는 것으로 일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시노 교수와 박성빈 교수는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균형을 잡는 데서야말로 한일의 소통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정부 간 한일관계 개선이 진행된 해이자 코로나19로 가로막혔던 한일 간 인적교류, 문화교류가 다시 활발해진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IJS일본리뷰도 이를 반영하여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새로/새삼 주목되는, 일본 현지 사정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주마다 발표되는 이들의 글들을 한데 모아 한자리에서 꼼꼼히 통독해 보고 느낀 것

이 있습니다. IJS일본리뷰가 지난 1년 다루었던 대상이나 이를 관찰하는 시점/지점이 그동안의 일본 연구(또는 일본 연구방법론)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집필자들은 이를 의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본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그런 감각은 갖고 있었습시다만, 한일관계 악화, 그리고 이와 동시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의 단절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교류가 단절된 사이 일본인이 이해불가의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다시 찾은 일본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새삼 실감했습니다(10호). “삼 년이라는 시간 (...) 한 발짝 떨어져서 일본을 보게 해”서 “일종의 거리감이 생긴 것”을 느끼면서도 일본에서 다시 찾은 것은 ‘정신적 모노컬처’를 거부하게 하는 여러 실존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이라는 연구 대상의 “삶의 총체성 회복”이야말로 식민주의 극복으로 한국과 일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3년 만에 다시 찾은 일본에서 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간토 대학살 이후 100년의 시간은 그렇게 새로 열린 공간에서 찾아왔습니다. 이형식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가 10년 만의 안식 학기를 활용하여 찾은 도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한국과 달리 “매우 ‘변함없음’을 느끼는 ‘낯설지 않은 어딘가 어색한 익숙함’”의 공간이었습니다(18호).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간토 대학살을 기억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위화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학 이래 고민했던 “연구자가 어딘가에 두어야 할 이카리(いかり)”가 ‘닻(錨)’에서 ‘분노(怒)’로 변하는 시간이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저희 연구소의 이은경 교수는 오랜만에 방문한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2011년 3월의 시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22호). 그는 당시의 어수선한 상황과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기본에 충실하던 일본인들을 기억해 내며, 앞으로 늘어날 ‘스킨십’의 기회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지나친 비관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절이 연결의 결핍을 실감하게 했고, 접촉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준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오래 들어왔던 말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 줍니다. 변화는 접촉에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IJS일본리뷰를 다시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지방’에 주목하는 글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인구감소이고, 그 여파가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지방이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 또한 이미 진행되던 일들이 코로나19로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신기영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포함해 일본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 일본의 민심이 지향하는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2023년에 실시될 통일지방선거를 주목했습니다(7호). 그는 이

를 관찰하는 지표로 여성과 청년 등으로 대표되는 “대표성의 다양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도 지방, 여성, 청년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지방대학의 경험에서 한국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김성은 전남대 일어일문과 교수의 제언은 한일관계 대전환의 구체적인 전선이 지방대학에 구축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9호). 그가 구체적인 모델로 주목한 것이 규슈 벳푸(別府)시의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APU)입니다. 일본연구소도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협력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희경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교수가 주목한 것도 지역사회와 지자체입니다(23호).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돌봄이라는, 한국 사회도 마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한계에도 일본의 오랜 실전 경험은 이제 막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제를 구축하려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정순일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연구년을 얻어 가게 된 교토에서 자녀 교육에 분투하면서, 교토에서 경험한 교토 인터내셔널스쿨(KIS)이라는 이문화 공간이 한일교류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13호). KIS가 폐교였던 곳에 마련되었고, 방문 한국인 연구자의 2세가 이곳에 연이 닿았다는 사실은, 일본 사회의 변화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의미심장합니다.

한편 양인실 이와테대학 교수는 코로나19라는 재해가 이와테를 재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재난, 재해, 전쟁과 결부된 지방의 재창조=재발견의 역사와 그 귀결인 ‘고향의 형상화’가 가지는 문제들을 돌아보게 합니다(27호).

코로나19 재난은 아날로그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팩스와 수작업으로 감염자를 집계하는 장면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디지털청을 신설했으며, ‘지식재산추진계획 2021’을 발표하여 디지털 사회로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현정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장인을 존중하는 나무의 나라 일본에서 아날로그적 전통과 디지털 혁신의 융합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15호). 그는 구마 겐고(隈研吾)의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일본 사회의 ‘아날로그적’ 지향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패착이 될지, 아니면 폭력적인 속도로 진전되는 전지구적인 디지털화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지” 그 귀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김찬훈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제언은 조금 더 절박합니다(11호). 그는 디지털 대전환의 세계적 트렌드에 뒤쳐져 있다는 반성에 기초해 일본이 채택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의 투자 활용 전략이 일본 사회에 상당히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단절 끝에 찾아온 한일 교류의 봄은 대중문화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체감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코로나19 종식을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아마도 <더퍼스트 슬램덩크>의 개봉과 흥행이었을 겁니다. 그 자신이 열성팬임을 자처하는 김호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의 미디어가 놓치고 있는 슬램덩크 현상의 이면을 조명했습니다(17호). 그 하나는 3D 애니메이션이라는 표현기법상의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한 팬덤에 다가서는 스토리의 확장성입니다. 그 연장에서 김호진 교수는 30년의 공백을 사이에 둔 원작과 극장판의 차이를 읽어 내려 합니다. 그 격차 속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면 일본 사회도 그만큼 새로운 지평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주목한 두 측면은 일본 사회의 30년의 변화에도 유용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하경 숙명여대 일본학과 교수가 분석한 ‘K’ 현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1호). 신하경 교수는 대중문화의 경제산업적 속성에 주목하여 현재의 ‘K’ 현상을 낳은 시스템이 1990년대 초중반에 형성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대중문화가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은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K’ 현상에는 30년의 시간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30년의 시간에 주목하는 것은 ‘한일역전’에도 여전히 확산되는 한국의 일본 문화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내려는 남상욱 인천대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수에게도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14호). 남상욱 교수는 잃어버린 시간으로 처리되던 지난 30년은 일본이 개인의 삶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시간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성비갑’인 ‘소확행’들로 구성된 일본적 생활양식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한일관계의 30년을 대중문화의 한일관계/한일비교로 추적해 보는 것은 대전환의 입구에 선 한일관계에 큰 시사를 던질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박이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는 한류 연구를 30년 동안의 일본 대중문화와의 비교를 넘어 시공간적 확대 속으로 더욱 깊이 진입시켜 주고 있습니다(19호). 박이진 교수는 한류의 미래를 19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자포니즘(Japonism)과 이미 17세기 유럽에서 일기 시작한 시누아즈리(Chinoiserie)가 교차하는 인류문화사 속에서 동아시아적 맥락을 따라가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이진 교수는 2023년 한국에서 일본을 관찰하는 일이 근세 이래 동아시아의 한중일 교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임을 확인해 줍니다.

이와 같이 2023년 IJS일본리뷰의 집필자들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일본

연구의 틀에서 포착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그것은 다시 현재 진행되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위화감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문장은 저희 연구소의 정지희 교수가 그의 글에서 맺은 결론입니다(26호). 정지희 교수는 동아시아에 ‘냉전’, ‘포스트 냉전’, ‘포스트 포스트 냉전’이 혼재하며 밀려오고 물러서는 가운데, 이를 ‘전후 일본’이라는 시공간으로 살아온 일본인의 삶의 감각이 한일관계의 어긋남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 및 자본주의적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기에, 신냉전 시대의 해법으로서의 자유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해묵은 냉전 시대의 언어들을 동원하여 한일 간에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 문제들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움직임은 그래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준비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구정치를 그리는 일이 일본연구에 주어진 과제라는 점을 다시 새겨봅니다.

지난 새해를 유럽의 전쟁으로 맞이했던 인류는 이번 새해를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으로 맞이했습니다.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멈추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가 전쟁과 평화의 학문으로 정립해 온 ‘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 한계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다음 새해를 세 개의 전쟁, 즉 세계전쟁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쟁 발발에 ‘지역연구(Area Studies)’가 공범자가 아니랄 수 있는지요? ‘지역연구’는 그동안 지구사회의 평화와 안정, 인류문명의 번영에 어떤 기여를 해 왔는지요?

‘지역연구’는 이제 진정으로 과학적 평화학으로 거듭나서 국제관계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쟁 방지와 평화 확산에 공헌하는 학문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일본연구소는 이미 5년 전부터 ‘포스트-지역연구’ 구축을 목표로 일본연구의 재구축을 고민해 왔습니다. 탈냉전과 함께 허물어질 것처럼 보였던 경계들이 여기저기에서 다시 굵은 실선으로 전면화하여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달리했던 지역들이 다시 진한 색깔로 부상하여 여기저기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시대, 전통적 지역연구는 이를 설명할지언정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지역연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게 제시하긴 어렵지만, ‘포스트-지역연구’라는 과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스트-지역연구’라는 과제의 발견은, 저희 일본연구소가 2009년부터 실시해 온 HK기획연구 총서 17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양자관계로서 한일관계와 지역연구 대상으로서 매우 풍부한 사례를 안고 있는 일본 사회를 지켜보며 얻은 성과입니다.

올해 일본연구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에 기초해 새로운 과제로 제시한 ‘포스트-지역연구로서 일본연구의 재구축’을 향해 또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의 IJS일본리뷰를 통독한 결과, 우리가 세웠던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새해 성년 이후를 준비하고 새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연구소를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직무대리

<IJS일본리뷰>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재)학봉장학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